

대립개념과 보완개념들을 통해 추적한 문명 개념의 변천과정 — 18세기와 19세기 초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황수영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교수

■ **논문분야** 철학, 서양사, 정치학

■ **주제어** 문명, 자연, 계몽, 진보, 문화, 유럽중심주의

■ **요약문**

프랑스에서 문명 개념은 절대왕정 시대부터 사회관계, 권력관계,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대립개념의 설정과 극복 그리고 자기 확대 속에서 하위 그룹의 개념군들을 창출하고 가지치기하면서 파노라마적인 의미군을 만들어 낸다. 18세기 중반, 궁정에 진출한 부르주아 계급에서 유래하여 궁정예절을 의미하는 데 쓰인 한 단어(civil)가 유사한 언어군에 속하는 다른 말들을 누르고 문명을 지칭하는 데 성공한다. 이때부터 문명이라는 말은 보편적 함의를 갖게 된다. 홉스, 로크, 루소와 같은 근대 정치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자연상태를 설정하고 이를 타자화 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성립을 논한 것처럼 이 연장선상에서 문명 개념은 자연과의 단절로 특징지어지면서 절대적 외연을 얻는다. 18세기 후반 이 개념은 계몽사상가들과 더불어 계몽정신으로 의미전환을 하는데, 이와 더불어 과거와의 단절, 이성 의 눈뜸,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 사회의 진보 등의 의미로 내용을 살지운다. 그러나 혁명 이후 왕정복고기에 쿠쟁, 기조, 주프루아 같은 이데올로그들은 프랑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연속을 주장하고 하나의 유럽을 강조하면서 자국중심주의, 유럽중심주의의 태도를 보인다. 이 태도는 서양 문명의 팽창주의적 특징의 모태가 되는 동시에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전달되어 동아시아의 문명개화론을 촉발하였다.

1. 서론—문명 개념의 기원

오늘날 우리가 이질적 문명권 간의 소통이나 충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복수의 문명을 전제로 한다. 이 복수의 문명들 사이에서 최소한의 대화 가능성을 타진할 때 우리는 각 문명권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든, 세상을 대하는 가치관에 관한 것이든 타자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을 깨닫기까지 인류가 얼마나 복잡하고도 지난한 길을 걸어 왔는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이 개념이 처음에 프랑스에서 쓰이기 시작했을 때는 단수로 출발했다. 그것은 사회발전의 이념으로 시작하여 점차 프랑스 문명, 더 나아가 유럽 문명을 지칭하게 되며 이 관점에서 그 외의 영역을 문명화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세계에 대한 관찰과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타지역의 문명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복수의 문명이라는 생각이 비로소 등장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인들에게는 이 복수의 문명들 뒤에 그것들의 가치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하나의 기준이, 즉 서양적 기준이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18세기 프랑스에서 생겨난 문명이라는 말의 형성과 전개를 추적하고 그것이 일정한 의미로 정착되어 19세기 초중반 중국과 일본으로 전달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보여 주려 한다.

문명이라는 말은 오늘날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어서 그 개념이 형성되기까지 얼마나 복잡한 사회정치적, 사상사적 우여곡절을 거쳤는가를 알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개념사적 연구를 통해 문명 개념이 오늘날 단순히 서양과 동양을 가르는 차이만이 아니라 서양 내부에서도 계급 간의 갈등이나 지역 간 갈등, 시대적 선취의 문제, 국가 간의 이른바 발전 정도에 따라 가속과 지연이라는 현상 속에서 차이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

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 개념이 내포하는 사회사적 현상들의 다차원적 전개를 고려할 때 자연스런 일이다. 문명 개념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는 1939년에 출간된(1936년 완성) 노르베르트 엘리아스(Norbert Elias)의 유명한 저서 『문명화과정Über den Prozess der Zivilisation』을 통해 어느 정도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¹⁾ 이 책을 구상하기 전 엘리아스는 나치의 유대인 정책을 피해 1933년 파리로 망명하고 다시 2년 후에 영국으로 건너가 연구를 계속한다. 따라서 그는 프랑스와 영국의 지적 풍토를 접하고 나서 문명이라는 말의 영국적, 프랑스적 기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에 착수하게 되는데 물론 독일과의 비교도 중요한 주제로 삼는다. 그러나 이미 프랑스에서는 1929년 생테즈(Synthèse) 국제연구소에서 당대 최고의 역사학자이자 아날학파의 선구자로 알려진 루시앵 페브르(Lucien Febvre)와 앙리 베르(Henri Berr)가 문명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 다음 이를 학술지에 특집으로 신는다. 특히 페브르는 여기서 문명이라는 말의 기원과 의미변천에 대한 긴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²⁾ 즉 프랑스에서는 이 개념에 대한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엘리아스가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³⁾

실제로 엘리아스는 자신의 책 초반부에서 ‘프랑스에서 문명 개념의 사회적 기원’이라는 주제에 한 장을 할당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한 대

1) 번역서로는 노베르트 엘리아스(2001), 『문명화과정, 매너의 역사』, 유희수 역, 신서원 참조.
2) Febvre, Lucien(1930), "Civilisation: Evolution d'un mot et d'un groupe d'idées," in Centre International de Synthèse, *Civilisation. Le mot et l'idée*, Paris Albin Michel, pp.1~59.
3) 엘리아스 자신은 이 학술대회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지만, 그와 절친한 교제를 가졌던 러시아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 알렉상드르 쿠아레(A. Koyré)는 당시에 생테즈 국제연구소의 일원이었으며, 삶과 문명의 관계에 대한 회프딩(Harald Hoeffding)의 저술을 번역하고 있었다. 따라서 생테즈의 역사 잡지 최근호에서 에릭 브리앙(Eric Brian)과 마리 제송(Marie Jaisson)은 엘리아스가 이 연구소의 작업을 알고 있었으리라 추측한다. *Revue de Synthèse* (2008), tome 129, 6e série, No.1, pp.148~149.

체로 엘리아스와 페브르의 연구는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두 학자의 중요한 관점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18세기 중반에 나타난 문명이라는 말이 이전에 사용되던 유사한 언어군과 단절을 보여 주는가, 아니면 연속선상에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다. 페브르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엘리아스는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문명 즉 시빌리자시옹(civilisation)이라는 말이 시빌(civil)이라는 형용사의 동사인 시빌리제(civiliser)의 명사형에서 유래한다는 것이다.⁴⁾ 궁정예절을 의미하던 시빌리테(civilité, 시빌의 명사형)라는 말은 봉건영주들의 예절인 쿠르투아지(courtoisie)와 스스로를 차별화하면서 더 우월한 예절을 나타내는 데 쓰였는데, 이것은 이미 스러져 가는 봉건귀족의 권력과 급부상하는 절대왕정의 권력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시빌은 정중한(poli), 세련된(개화된, policé)이라는 말들과 유사한 언어군에 속해 있었다. 무엇보다 '폴리세'(policé)라는 말은 최고의 교양을 갖춘 집단 혹은 계급을 지칭하는 데 쓰였고, 시빌이라는 말과 경쟁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명사화되면서 문명을 지칭하는 데 성공한 말은 시빌의 명사형 즉 시빌리자시옹이다. 이것은 엘리아스가 잘 지적한 것처럼 절대왕정의 초기부터 서서히 궁정에 진출하기 시작한 부르주아 계급의 영향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시빌이라는 형용사는 시민을 의미하는 라틴어 키비스(civis)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어원적으로 시민들 간의 예절을 나타내는 시빌이라는 말이 더 고귀한 사람들의 예절을 의미하던 폴리세를 누르고 보편적 의미로 확장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궁정

4) 명사로서의 문명이라는 말은 1756년 미라보(Victor Riqueti, marquis de Mirabeau, 1715~1789)의 작품 *L'Ami des hommes*(Part. I, chap.8, s.1., s.n., 1758, t.I, p.168)에서 최초로 나타난다. 이 말은 1771년 『트레부 사전Dictionnaire du Trévoux』에 정식으로 수록되었다. Binoche, Bertrand (éd) (2007), *Les équivoques de la civilisation*, Champ Vallon에서 베르트랑 비노슈의 지적을 재인용.

귀족과 궁정에 진출한 부르주아들은 계급적 차이는 있었지만 같은 매너를 가지고 활동하였다. 따라서 시빌이나 폴리세는 모두 궁정인들의 예절을 의미하는 데 쓰였지만 부르주아 계급에서 유래한 말이 승리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인 것이다.

엘리아스에 의하면 18세기 중엽 이후 중산층 집단의 보다 강력한 진출에 의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것은 이전의 궁정귀족적 전통의 직접적인 지속으로서 단절 없이 일어났다.⁵⁾ 그러나 페브르에 의하면 시빌이라는 말을 동사화(시빌리제, civiliser)하고, 곧이어 명사화(civilisation)할 때 여기서 새로운 의미변화가 일어난다.⁶⁾ 당시 프랑스 지식인들이 사용하던 시빌리자시옹이란 말은 단순히 궁정귀족들의 허례허식 같은 것과는 무관하게 학문과 예술, 문학, 종교와 같은 정신적 영역 및 사회, 정치,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난 개혁과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전에 궁정귀족들이 봉건귀족들과 자신들을 차별화하기 위해 폴리세나 시빌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듯이, 이제 다시금 부패한 궁정귀족들과 자신들을 차별화하기 위해 시빌리자시옹이라는 말을 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민사회가 곧 문명사회와 동일시된다.

이 현상은 프랑스혁명 후에 새로운 양상을 띠고 가속화되며, 문명이라는 말은 곧 국가 전체로 확대되었다. 19세기 프랑스의 역사가 프랑수아 기조(François P. G. Guizot)에 의하면 프랑스 문명은 곧 유럽 문명의 첨단을 의미하며, 하나의 보편적 문명이 있을 뿐이고 그 모범은 바로 프랑스이다. 그는 유럽과 다른 지역의 삶의 양식도 문명이라고 부르기는 하였으나 그 모범이 유럽, 그리고 프랑스라고 주저 없이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

5) 엘리아스(2001), 앞의 책, 78쪽.

6) Febvre, Lucien(1930), 앞의 논문, p.21.

미 독일의 지식인들에게 반감을 사게 된다. 독일의 궁정귀족들은 프랑스적 모범을 따라 생활하였으나 일찍이 궁정에 진출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던 독일 부르주아 지식인들은 보편적 문명이라는 말에 저항하고 대신 독일에 고유한 '문화(Kultur)'를 주장하면서 문명이 기술적, 물질적, 제도적 발전과 관련된다면 문화는 고상한 차원의 정신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전환을 시킨다.⁷⁾ 엘리아스는 이런 모든 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독일에서 문명과 문화의 대립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난 것처럼 프랑스에서 문명이라는 말의 출현은 그렇게 단절적이지 않다는 설명에는 좀 인위적인 면이 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적 역할의 차이 즉 물질적 토대가 달랐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구체제에 맞서 투쟁한 부르주아 지식인들의 역할은 정치적 상황에 무력하게 남아 있던 독일 지식인들보다 더욱 더 극단적이고 단절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선 문명사회 혹은 시민사회라는 말이 당대 철학자들 특히 홉스, 로크, 루소의 문헌에서 얼마나 급진적이고 단절적인 방식으로 사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흔히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당대 지식인들의 문헌을 토대로 이러한 단절이 프랑스혁명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19세기 이후 문명 개념이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프랑스라는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유럽 문명이라는 개념의 형성, 그리고 독일 지식인들의 저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동아시아의 문명개화론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7) 문명과 문화의 대립관계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나인호, 2003, 「문명과 문화 개념으로 본 유럽인의 자기의식(1750~1918/19)」, 『역사문제연구』 제10호.

2. 문명과 자연—홉스, 로크, 루소에서 자연상태와 시민사회⁸⁾

역사의 격동기에는 수많은 개념들이 창출되고 상호 연관성을 가진 의미체로 공존하면서 서로 경쟁한다. 경쟁하는 개념들 중에서 어떤 것이 살아남는가 하는 것은 종종 그 개념을 사용하는 집단이 정치적 행동에서 승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d Koselleck)에 의하면 “하나의 집단이 행동단위로 나타나려면 그 집단은 개념 속에서 스스로를 재인식하고 규정해야 한다.”⁹⁾ 그런데 한 집단은 종종 자신을 규정하는 개념을 보편화하기 위해 타자가 사용하는 개념을 평가절하하거나 혹은 새로운 타자를 설정하고 그를 비하하는 개념을 만들어 낸다. 그와 같이 해서 헬레나인과 야만인, 기독교도와 비기독교도, 인간과 비인간과 같은 비대칭적 이분법이 나타난다. 문명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프랑스 부르주아 계급의 세력 확대와 더불어 명사화되면서 이전의 궁정예절에서 유래한 형용사 시빌이나 폴리세를 걸치레를 나타내는 것으로 비하하고, 인민(peuple) 전체가 정신적·물질적인 모든 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진보를 이룩하는 것으로 외연을 넓힌다.

그런데 문명 개념의 보편화 과정은 또 하나의 중요한 대립개념을 상정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낯익은 자연과 문명의 대립을 생각해 보자. 이 대립은 문명을 보통 자연적인 것을 극복한 상태로 생각하는 경향에서 성립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근대 정치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연상태를 설정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대립에서 자연

8) 여기에서는 *société civile*(civil society)을 우선 시민사회로 번역하겠다. 홉스와 로크의 경우 문명이라는 말이 생기기 이전에 활동하였고, 이런 저자들의 영향으로부터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이 문명 개념을 시민사회의 발전이라는 의미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9) 라인하르트 코젤렉(1998), 『지나간 미래』, 문학동네, 236쪽.

을 타자로 설정함으로써 문명이 어떠한 외연을 가질 수 있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 문명 개념이 긍정예절과 스스로를 대립시킬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부상에 상응하지만, 자연을 극복한 어떤 것이라고 할 때는 한 계급이나 지역, 국가, 시대를 넘어서서 완벽하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며, 전통적으로 신의 관할하에 있던 영역을 해체하고 인간의 붓으로 새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연에 대립하는 문명의 설정은 이전의 어떤 개념과의 연속도 아닌 완벽한 단절을 의도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물론 홉스나 로크 같은 사람들이 설정한 것은 자연상태와 시민사회의 대립이다. 원자적 개인들과 사회계약론에서 비롯하는 그들의 시민사회에 대한 규정은 점차 근대인들의 사회상에 보편적 모범으로 자리 잡고 루소에 와서 문명사회 일반으로 확대된다.

자연에 대한 해석은 고대부터 존재해 왔지만 그것은 문명, 즉 인간이 이룩한 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기는커녕 모든 것이 거기로부터 나와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신적인 원천의 의미 혹은 로고스, 즉 자연의 이법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라는 형이상학적 의미에 가까이 있었다. 그러나 서양 근대로 오면 자연은 세속화, 물질화되면서 아주 다른 의미를 획득한다. 주로 자연과학의 발달에 자극을 받은 근대인 데카르트, 갈릴레이의 경우 자연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표현될 수 있는 기계, 즉 수학적 우주를 지칭하였다. 그러나 이 신플라톤주의적으로 재구성된 합리적 우주에 인간의 욕망이 위치할 곳은 없었다. 그것은 우연이거나 신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영역으로 남았다. 데카르트에게 '자연의 빛'은 여전히 이성의 작용을 의미했다. 자연이 욕망의 지대로 평가된 것은 인간과 사회의 문제에 대해 고민한 학자들에 의해서이다. 우리는 홉스에서 그 최초의 규정을 만난다.

홉스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충격적인 자연상태의 정의를 다음

과 같이 제시했다. 즉,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다." 자연상태는 곧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며, 자연상태의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때때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을 반사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다."¹⁰⁾ 물론 홉스에 대해 지나치게 적대적이었던 17세기와는 달리 오늘날의 학자들은 자연상태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상황이 아니라 질서 잡힌 시민사회를 유도해 내기 위한 하나의 논리적 가정이라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논리적 가정이 왜 필요했을까? 비록 홉스가 자연상태의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적 권리를 군주에게 양도할 것을 주장하지만, 이전의 왕권신수설에 의지한 절대왕정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시민들의 계약과 신약(covenant)을 주장한 점이고, 이 점에서 그는 시민들의 자발성을 신뢰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그 목표가 군주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자연상태는 자발적 동의에 입각한 평화로운 시민사회를 향한 열망에 의해 설정된 적대적 개념이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절대왕정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동의에 의해 그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이 새롭게 등장한다. 결국 홉스가 노린 것은 바로 시민사회로의 이행의 정당성이다. 이 정당성은 홉스가 자연상태의 인간들을 자유롭게 서로 간에 평등한 원자적 개인들로 보는 데서 유래한다. 근대 정치철학자들은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보다는 고립된 개인의 자발성,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개인은 무엇보다도 욕망의 존재이지만 욕망들 간의 충돌을 이성에 의해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전제된다. 계약을 맺는 개인들은 이성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통치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합리적 계산

10) Hobbes, Thomas(1981), Leviathan, C. B. Machperson (ed.), Pelican Classics, ch.13, p.186.

을 할 수 있는 개인들 간의 계약으로부터 나온다. 홉스는 이 생각을 표명한 최초의 인물이다.

홉스가 자연상태의 개인을 가정한 이후에는 누구도 시민사회의 성립을 자연상태와 연관지어 논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로크 역시 자연상태를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상태로 본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기의 소유물과 자신의 신체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¹¹⁾ 로크는 인간이 욕구를 가진 이기적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성적으로 자기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홉스가 자연상태를 자기의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는 상태로 본 데 반해, 로크에 의하면 자연상태는 전쟁상태가 아니며 자연상태의 개인은 무엇보다도 이성과 양심이 명하는 자연법에 근거해서 살아간다. 다른 한편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의 재판관이 되며 법의 집행자가 되기” 때문에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¹²⁾ 이 주장은 자연법을 실천하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내포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욕망과 이성의 갈등이라는 해묵은 근거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시민사회로의 이행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홉스는 자연상태를 ‘공포’가 지배하는 상태라 묘사했고, 로크는 소유, 즉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에 불안정한, ‘불편함’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묘사한다.¹³⁾ 비록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홉스와 로크는 자연상태에는 문제점과 갈등이 항상적으로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권을 양도하고 군주나 공동체의 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일치한다. 로크에서 중요한 두 가지 점은 주지하다시피 시민사회의 성립에 사유재산권을 정당화하는 것과 인민의 동의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는 대의정부를 주장한 것이다. 권리의 양도는 정부가 인민의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들을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형태의 절대권력도 가질 수 없다. 이 점이 항구적인 전쟁의 공포로 인해 절대권력에 인민의 자연권을 양도해야 한다는 홉스의 주장과 다른 점이다. 로크에서 자연상태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권력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편 루소의 저작들을 보면 문명이라는 말이 명사적으로 쓰이지는 않고 있지만 그 의미가 오늘날의 의미에 가깝게 형성된 18세기 중반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일단 용어상의 변천을 보면, 초기의 『학문예술론』(1750)에서는 다양한 시대의 문명인을 지칭하기 위해 ‘개화한 국민들(Peuples policés)’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문명이라는 말의 복수적 사용을 함축하고 있다. 한편 『인간 불평등 기원론』(1755)에서는 문명인(l'homme civilisé)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사용된다.¹⁴⁾ 이 책에서 루소는 야생인(l'homme sauvage)의 상태로부터 문명사회로 도달하는 인류의 역사를 추적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회의 발전 형태를 문명이라고 부르는 복수적 사용의 함축을 역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의미에서 이른바 자연과 문명의 대립은 루소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자연과 문명의 대립은 인류학자들의 용어법에서 유래하는데 여기에는 레비-스트로스에 의하면 루소의 야생인 또는 자연인(l'homme naturel)에 대한 가정이 중요한 기여

11) Laslett, P.(1967),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Cambridge, §4.

12) Laslett, P.(1967), 앞의 글, §87.

13) Laslett, P.(1967), 앞의 글, §101.

14) 예를 들면, Rousseau, J. -J.(1964), *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inégalité parmi les hommes*, *Rousseau Oeuvres complètes* III, nrf, p.135, p.152. 문명이라는 명사는 1756년 미라보의 책에서 처음 나온다고 앞서 지적했으나,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그 이전부터 형용사나 동사에 의해 충분히 전달되고 있었으며, 루소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음 책을 참조할 것. Binoche, Bertrand (éd) (2007), *Les équivoques de la civilisations*, Champ Vallon, p.206.

를 하고 있다. 이것은 루소의 사유가 정치학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더욱 폭넓은 시야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홉스와 로크가 시민사회의 구성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자연상태에서 출발했다면 루소는 매우 다른 관점에서 자연상태에 접근한다. “누군가 어떤 땅에 울타리를 치고 ‘이 땅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만큼 단순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최초의 인간이 문명사회의 실질적인 창시자이다.”¹⁵⁾ 이 인용에서 우리는 시민사회의 성립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나 자연상태에서 시민사회로의 이행이 필연적이라는 생각은 전혀 읽을 수 없다. 반대로 문명사회의 성립은 사유재산이라는 우연한 계기로부터 비롯한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에게 자연상태의 공포나 불편함을 덜어 주려는 커녕 새로운 불행의 시작이다. 루소는 홉스, 로크와 달리 자연상태의 인간을 단지 자기애(amour de soi)에 따라 살아가는 자유롭고 순진무구한 어린애와 같은 상태로 설정한다. 그러나 인구증가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애정과 질투, 수치, 경멸 등의 감정이 생기고 이런 감정을 제어하는 예의범절이 사회성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루소가 주장하는 사회계약은 홉스나 로크가 한 것처럼 시민사회를 원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반대로 그에 의하면 어떤 우연이나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든 이미 사회상태로 들어선 인간은 과거의 자연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따라서 문명사회에서 영위되는 현재 인간의 삶의 현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런 한에서 자연상태를 대신하여 인간이 본래 가졌던 자유와 행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사회계약론』은 바로 이러한 현실인식 위에서 구상된다.

이처럼 루소는 홉스와 로크만이 아니라 진보낙관론자들인 당대의 계몽

주의자들에 반대하면서 문명사회의 폐해를 일찌감치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계약에 의해 루소는 인민 전체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고 일반의 지에 의해 합법적 정부를 구성하여 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개인의 행복과 자유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사회를 구상함으로써 개혁과 진보를 갈망하는 계몽주의자들의 염원에 부응하였다. 또한 루소의 문명비판은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높은 수준의 학문과 예술에 대해서보다는 사치와 허영을 부추기는 당시 사교계의 풍속을 겨냥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 점에서 미라보나 계몽주의자들이 궁정예절의 허식을 비판하면서 문명의 의미를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진정한’ 문명의 이상을 그려내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아무튼 루소의 문명비판은 당대의 계몽주의자들의 낙관론에는 이질적인 것이었지만, 프랑스혁명은 이들의 낙관론보다는 불평등을 고발하고 일반의지가 지배하는 합법적 정부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는 루소의 과격함에 더 큰 힘을 얻었다.

3. 계몽과 문명—문명 개념의 확대 과정

특정 개념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집단은 종종 상반되는 개념을 설정하고 그것을 타자화하면서 자신의 의미를 우월한 것으로 만든 다음 보편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코젤렉이 개념사 연구에서 보여 주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이해는 세부적인 과정에서 교정을 요한다. 우리가 본 자연과 문명의 관계는 단선적 대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개념은 홉스, 로크, 루소에서 자연과 스스로를 차별화하면서 그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 과정은 단지 자연 개념을 타자화하는 데 그치는 것은

15) Rousseau, J. -J.(1964), 앞의 책, p.164.

아니다. 오히려 자연은 여기서 시민사회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게 하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자연상태에 대한 철저한 사색은 자연권이나 자연법을 매개로 하여 시민권과 법의 정신에 대한 철저한 개념규정으로 이어진다. 홉스의 자연적 자유, 로크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자연상태를 극복하고 시민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즉 시민사회 구성의 기본적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자연법에 대한 사색을 통해 법의 영역은 신학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연적이고 세속적인 영역에 머무를 수 있었다. 그로티우스의 다음과 같은 말도 이런 배경 아래서이다. “신이 없다고 가정해도, 신이 인간사에 무관심하다고 가정해도, 역시 자연법의 명제들은 타당성을 지닌다.”¹⁶⁾ 이 정신은 로크의 자연권 개념의 인위성을 지적한 루소에서조차 마찬가지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문명인들에서 자연상태에 가장 근접한 모범을 제시하는 것이 합법적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 칸트의 표현에 따르면, 규제이념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자연 개념은 18세기에 와서 문명사회의 내용을 살지우는 데 일조하였다.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이 그리는 이상사회의 모범은 길지 않은 역사적 배경을 갖는다. 자연권에 나타난 평등과 자유, 개인의 욕망의 실현이라는 인간 행복의 필수 조건들이 시민사회 내에서 합법적으로 조정되어 시민의 삶이 점차 개선되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가 진보한다는 생각이야말로 계몽주의자들이 그리던 계몽사회의 이상이었다. 공정예절에 한정된 의미를 거부하면서 문명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계몽주의자들은 이제 계몽정신의 실천으로 거기에 독자적인 내용을 첨가하게 된다. 즉, 18세

16) Hugo Grotius(1625), *De Jure Belliac Pacise*, Prolegoma, Sect. XI; E. 카시러(1995), 『계몽주의 철학』, 민음사, 322쪽에서 재인용.

기에 형성된 문명 개념은 계몽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계몽(啓蒙, Lumières, Enligtenment, Aufklärung)은 프랑스어 어원을 보면 빛을 복수로 부르는 형태지만, 영어와 독일어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힌다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빛은 이성의 활동을 표현하며 계몽은 무지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칸트는 1784년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계몽을 “이성을 사용하여 인간 스스로 자초한 미성숙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넓게 보면 중세와의 단절을 주장하며 인간 이성을 통해 스스로 사유할 것을 주장한 근대의 경향을 모두 계몽사상이라고 부르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18세기 프랑스의 사회개혁 사상가들을 가리킨다. 프랑스에서는 18세기에 사회개혁을 위해 행동한 계몽철학자들을 대문자로 ‘철학자들(Philosophes)’이라 불렀는데, 오늘날의 의미로 이들은 사회참여적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철학자들이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전통적인 철학적 연구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수학, 물리학, 생물학, 지리학 등을 비롯한 자연과학에서부터 정치, 사회, 법, 행정 등 사회 각 분야의 문제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음악, 회화, 연극, 문학 등 인문학적 탐구까지 아우르는 박학다식한 지식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정치, 사회, 법, 행정 등의 실제적인 분야에서 가장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다. 수학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고 자연과학은 갈릴레이와 데카르트의 시대에 이미 발전하고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이상 아래 현실사회비판과 개혁을 집단적으로 주도한 행위는 이들 계몽사상가들에서 최초로 나타난다. 이런 이유로 마르크스가 “철학자들은 이때까지 세상을 해석하기만 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계몽사상가들과 관련해서 좀 부당한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계몽사상가들은 현실의 실제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 목표를 위해 투옥이나 금서조치 등 강압적 환경 속에서도 앙시앵 레짐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실제로 이들이 인간과 사회 및 자연에 대한 모든 분야의 탐구를 아우르며 전 분야에서의 진보를 문명사회의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회제도나 정치의 개혁을 위한 구상과 추진력이야말로 이들이 보여 준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프랑스혁명은 여기서 탄력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의 서양 사회에 끼친 프랑스의 영향은 무엇보다 여기서 유래한다. 가령 예술이나 문학, 철학과 같은 이른바 정신문화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무관하게 어느 사회에서나 꽃필 수 있었다. 독일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문화'를 프랑스의 '문명'에 대립시키며 전자를 더 우월한 정신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후자를 기술적 차원에 한정하는 것도 이런 외적 인상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프랑스와 영국에서 유래하는 근대 유럽 문명을 말할 때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의 자유와 평등, 정교의 분리, 합리적인 제도개혁과 법질서의 확립, 대의정부 등 인권신장에 기초한 사회개혁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18세기 프랑스의 사회개혁가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진하고 있었다. 18세기 초의 사상가들인 몽테스키외, 볼테르는 영국에서 일어난 사회정치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1648년의 청교도혁명 당시 수평파들이 보여 준 민주주의적인 정부의 구상은 이미 사회계약, 보통선거 등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1688년의 명예혁명을 거치며 이후의 영국 사상가들 특히 로크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다. 이에 앞서 홉스의 이론은 청교도혁명 후 집권한 크롬웰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철학이라는 비판이 있었듯이, 이들의 이론은 당대의 정치적 격변과 무관하지 않다. 프랑스에 전달된 것은 주로 로크와 자유사상가들의 문헌이었다. 프랑스에서는 신교도들의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낭트칙령의 폐지로 인해 영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영국의 사상을 프랑스로 번역, 유통시키는 일에 기여했다. 영국 사상은 프랑

스로 유통되면서 변화에 목말라하던 프랑스 지식인들 사이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둔다. 몽테스키외와 볼테르는 각각 영국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영국 사상을 직접 소화, 흡수하기도 했다. 전자가 민주정과 인민의 평등을 주장했다면 볼테르는 입헌군주제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18세기 전반은 볼테르의 시대였다.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그의 열망과 문필가로서의 재능은 연극, 소설, 철학논저 및 기타 문헌을 통해 프랑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볼테르는 특히 구교와 신교의 갈등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건인 칼라스 사건에 손수 개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종교와 관용의 덕목을 주장하며 낭트칙령을 부활시킬 것을 주장했다.¹⁷⁾ 이 두 가지는 이미 로크가 정교 분리를 위해 채택한 태도였다. 관용은 종교 간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만이 아니라 사회의 세속화를 촉진하는 덕목이고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도 하다. 홉스가 생존을 위한 자연적 자유(타인을 공격할 수도 있는)를 주장했다면, 로크는 자신의 신체와 소유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유(자연법에 의해 조정되는)를 주장했다. 볼테르는 여기서 나아가 사상과 출판의 자유, 고문금지, 비롯한 형법개혁, 민법의 개혁 등 세부적인 항목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1789년의 인권선언에 볼테르의 영감은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18세기 후반의 사상가들은 시민들의 자유보다는 개인 간의 평등과 행복에 관심을 두었다. 루소의 친구이기도 했던 디드로는 『사회계약론』이 나오기 11년 전 『백과전서』의 한 항목에서 사회계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비록 입헌군주제를 지지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의 입장은 민주주의에

17) 관용 개념에 대해서는, Voltaire(1765), *Traité sur la tolérance*; 볼테르(2002), 『관용론』, 송기형·임미경 역, 한길사.

가깝다. 디드로는 사회적 불평등과 극빈층의 복지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200여 명의 저자와 함께 28권의 『백과전서』를 펴내는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면서 그는 이미 과거와의 실질적 단절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백과전서는 단순한 지식의 창고가 아니라 교권과 왕권 등 모든 종류의 근거 없는 권위와 편견에 대항하는 지식인들의 무기였고, 이것으로 무장한 지식인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중에 다가설 수 있었다. 앙리 세(Henri Sée)에 의하면 18세기 후반에 대중에 유통되던 각종 소책자들을 보면 인민의 자유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심지어 군주제를 옹호하는 보수적인 글들 속에서도 이미 삼부회의 성립과 정기적인 개최를 인정하고 국민의 동의 아래서만 새로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¹⁸⁾ 실제로 문명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미라보는 중농주의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조세 개혁을 국왕에게 권하는 『조세이론』(1760)을 썼다. 중농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군주제의 골격 안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과 합리적인 행정 개혁을 요구한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18세기 후반의 지식인들은 보수적이긴 진보적이긴 사회개혁이라는 대명제에 동의한 사람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돌바크(Baron d'Holbach)에 이르러 이 모든 개혁적 실천이 문명이라는 한 단어 속에 명백히 구체화됨을 본다. “인간 이성은 아직까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다. 인민의 문명화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무수한 장애가, 우리의 정부와 법, 교육과 제도 및 도덕을 완성하는 데 유일하게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의 진보를 이제까지 가로막아 왔다.”¹⁹⁾ 지식의 진보와 이를 수단으로 하는 개혁적 실천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문명의 이념은 이 시대 지식인들을 이끈 화두였다. 사회는 문명화의 과정에 있는 한

18) 앙리 세(2000), 『18세기 프랑스의 정치사상』, 나정원 역, 아카넷, 192쪽.

19) D'Holbach, Baron(1774), *Système sociale ou principes naturels de la morale et de la politique*, London, vol.3, p.162.

단계이며 이 과정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 프랑스인들은 점차 하나의 프랑스, 민중의 프랑스를 향해 가고 있었다.

4. 문명과 비문명—유럽 문명의 정체성 확립 과정

문명이라는 말은 혁명 이후에 새로운 양상을 띠고 전개된다. 여기에는 프랑스 국내외의 복잡한 정치적 맥락이 개입하고 있다. 특히 왕정복고기에 이르러 문명 개념은 프랑스의 국가이데올로기로 작용하기 시작하는데 보수 성향의 철학자 쿠쟁(Victor Cousin)과 역사학자 기조(François P. G. Guizot)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소르본 대학의 철학교수 쿠쟁은 혁명기 동안에 황폐화된 대학 강단을 재건하겠다는 명분 아래 혁명철학으로 알려진 계몽주의자들의 유물론을 배척하고 독일 관념론, 특히 헤겔의 철학을 받아들여 데카르트의 이원론과 결합하여 프랑스의 국가철학으로 확립하고자 했다. 기조의 역사철학 및 문명관도 헤겔적 목적론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소르본에서 행한 강의록으로 이루어진 『유럽문명의 일반사』(1828)와 『프랑스문명사』(1830)는 절충주의자들(éclectistes)로 알려진 이 시대 지식인들의 문명관을 대표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로든 후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중요한 저작이다.

『유럽문명의 일반사』에서 기조는 문명은 모든 특수한 역사적 사실들을 포함하는 “역사의 일반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역사의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로 제시한다.²⁰⁾ 따라서 유럽의 역사를 포함한 모든 역사적 사

20) Guizot, Francois P. G.(1985), *Histoire générale de la civilisation en Europe*, (1828) Paris, Hachette, “Pluriel,” pp.57~59.

건들이 문명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일반화된 문명 개념은 유럽 문명이라는 범례 위에서 설명된다. 기조는 프랑스 문명보다는 유럽 문명의 공통성과 단일성을 먼저 주장하는데, 이것은 유럽인들의 다양한 역사들 속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들, 발전 과정의 차이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전체적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이다. 로마, 게르만(barbarie), 그리고 기독교가 유럽인들을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맺어 주는 세 가지 요소들인데, 기조는 각각의 장단점을 논하면서 그것들을 문명화의 과정에 이르는 단계들로 설명한다. 즉, 로마제국에서는 도시화를, 게르만족의 전투적 성향에서는 개인의식의 발달을, 기독교에서는 개인 내면의 정신적·도덕적 진보를 본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유럽 안에서 문명의 모범을 보여 준 것은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명확성(clarté)과 사회성(sociabilité), 공감능력(sympathie)'이라는 세 요소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을 앞서고 있으며, 이 요소들은 언어, 정신, 풍속의 면에서 보편적으로 확대가 가능한 특징들이어서 유럽 문명을 선두에서 이끄는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

기조가 제시하는 문명의 척도는 계몽사상의 일부를 계승하면서도 왕정복고기의 보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회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문명사회의 기준을 제시한다. 즉, 물질은 있으나 지적·도덕적 활동이 빈약하고 개인들이 단지 집단으로만 인식되는 귀족제의 소국가들, 물질적인 면은 약하지만 종교적·도덕적으로 매우 고양된 그러나 정제된 아시아의 국가들, 소수의 인간들에게만 자유가 있고 다수의 인간들이 불평등과 억압에 시달리는 과거 유럽의 폭압적 사회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있으나 공공성의 관념이 없는 정제된 야만족(sauvage)의 사회를 차례로 비교하면서 이런 사회들을 문명국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한다. 이전의 사회들을 비판하는 기준으로 볼 때 기조가 가진 문명의 기준은 지적, 도덕적 활동, 개인의 자유와 평등, 공공성의 관념, 진보와 발전이

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그가 입헌군주적 대의제를 목표로 했지만 대체로 여기까지는 계몽주의자들 및 프랑스혁명의 정신과 유사하다.

그러나 기조는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계몽주의자들과 견해를 달리 한다. 첫째로, 위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문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진보(progrès)와 발전(développement)인데, 그 이유는 진보하지 않는 사회, 정제된 사회는 물질적 자산과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회 질서가 존재한다고 해도 개미들의 사회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사회진화론 혹은 팽창주의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계몽주의자들의 경우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으나, 구체제의 전복과 제도개혁을 통한 자유와 평등의 쟁취 자체가 사회 진보의 중요한 징표였다. 둘째로, 기조는 이런 기준들 위에서 문명사회에 가장 가까운 것이 당시의 유럽 특히 프랑스라고 보는 데서 자국중심주의 혹은 유럽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도 로마에서 시작하여 게르만과 기독교가 통합된 유럽인의 단일성을 주장하는 대목에서 유기체적 관점을 엿볼 수 있다. 기조는 프랑스혁명까지도 과거와의 연속선상에서 고찰한다. 이런 면은 자연상태에서 출발하여 과거와의 급진적 단절을 주장한 계몽주의자들과 명백히 상반된다. 셋째로, 계몽주의자들의 경우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통해 사회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기조는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분리된 두 요소로 보았고, 특히 개인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독교는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켜 도덕적, 지적 인간으로 재탄생시킨 면에서 문명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본다.²¹⁾ 계몽주의자들에게 기독교는 왕권과 더불어 근절해야 하는 구악에 해당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기조 문명관의 반동적 측면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나중에 주프루아(Théodore Jouffroy)가

21) Guizot, François P. G.(1985), 앞의 책, p.67.

기독교를 기준으로 문명국을 분류하면서 기독교의 전파를 문명화 과정의 일부로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시기에 종교는 단지 개인적인 면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대외정치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조 이외에도 쿠쟁의 제자인 주프루아, 그리고 낭만주의 작가 위고(Victor Hugo)가 유럽중심적인 문명관을 더 세차게 밀고 나갔다. 주프루아에 의하면 유럽 민족들의 경쟁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 새로운 국가로서 유럽의 탄생을 기대해야 한다.²²⁾ 보편적 상태로서의 문명은 본래 국가를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타국가와의 투쟁에서 자기정체성을 발견한다. 미슐레(J. Michelet)에 의하면 프랑스는 영국과의 투쟁을 통해서 그리고 키네(E. Quinet)에 의하면 독일은 나폴레옹의 침략에 의해 민족적, 국가적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19세기에 이르러 문명의 개념은 유럽이라는 새로운 통일체를 제공해 준 것이다. 위고에 의하면, “문명은 우리(유럽인) 모두에게 동일한 배(), 동일한 정신, 동일한 목적, 동일한 미래를 만들어 주었다.”²³⁾ 하지만 위고의 경우 타지역의 위협에 의해 유럽을 하나로 묶는 데서 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의 확장은 명확하다. 가령 초기에 그는 영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유럽 지역의 통일성을 말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영국-실용성과 응용성/독일-인내의 정신과 근면한 호기심, 과학의 나라/프랑스-양식(bon sens)과 명료한 지성의 국가”라는 주프루아의 삼분법을 결국 따르게 된다. 결국 이들에게 문명은 걸음으로만 국가를 뛰어넘는 도구였으며 “프랑스 민족주의의 재조직

22) Jouffroy, Théodore(1883), “De l'état actuel de l'humanité,” *Mélanges philosophiques*(1833), Genève, Slatkine, “Resources,” p.56.

23) Hugo, Victor(1985), *Théâtre II, Oeuvres complètes*, Paris, Robert Lafont, p.156. 다음 논문에서 재인용. Laurent, Franck(1999), “Penser l'Europe avec l'histoire, Sur quelques aspects et usages de la notion de civilisation européenne sous la Restauration et la Monarchie de Juillet,” *Romantisme*, n° 102, 2° trimestre.

화”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²⁴⁾

잘 알려진 것처럼 19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문명관이 제국주의, 팽창주의로 흘러들면 독일의 특수성,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독일 정신문화는 파시즘으로 결말이 났다. 18세기 프랑스가 종교권력과 계급문제 등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와 단절적인 문명의 개념을 제창하고 확대했다면 19세기 프랑스는 혁명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대외적 관계에서 주도권을 선취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의도로 문명 개념을 이용했다. 기조는 영국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그 제도적·경제적 측면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두 국가의 비교를 통해 문명관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이라는 신세계의 등장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프랑스는 이 두 모델의 종합과 지양에 의해 진보하는 것으로 그는 생각하였다. 한편 독일은 프랑스의 문명관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일부 지식인들은 여기에 동조했고, 상당수 지식인들은 프랑스식 문명관을 두고 과학기술과 생활의 편익, 제도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절하했다. 대신 그들은 독일 정신문화의 심오함을 주장하면서 독일정신의 우월성을 역설한다. 유럽 이외의 지역과 대면하여 하나의 유럽이라는 생각은 문명(LA Civilisation) 대 비문명이라는 구도를 가져왔다. 즉, 러시아, 터키,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유럽 이외의 지역과 대면하여 유럽의 우월한 정체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제 문명은 각국의 진보를 가능하는 규범적 성격을 갖는다. 규범으로서의 유럽 문명 그리고 문명의 단계들에 대한 기조와 주프루아, 위고의 견해는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에 전달되어 동아시아의 문명개화론을 촉발하게 된다.

24) Laurent, Frank(1999), 위의 논문, p.4.

나인호, 2003, 「문명과 문화 개념으로 본 유럽인의 자기의식(1750~1918/19)」,
『역사문제연구』 제10호.

E. 카시러(1995), 『계몽주의 철학』, 박완규 역, 민음사.

노베르크 엘리아스(2001), 『문명화과정, 매너의 역사』, 유희수 역, 신서원.

라인하르트 코젤렉(1998), 『지나간 미래』, 한철 역, 문학동네.

볼테르(2001), 『관용론』, 송기형 · 임미경 역, 한길사.

앙리 세(2000), 『18세기 프랑스의 정치사상』, 나정원 역, 아카넷.

Berr, Henri (dir) (1930), *Civilisation. Le mot et l'idée*, Paris Albin Michel.

Binoche, Bertrand (éd) (2007), *Les équivoques de la civilisation*, Champ Vallon.

D' Holbach, Baron(1774), *Système sociale ou principes naturels de la morale et de la politique*, London, vol.3.

Febvre, Lucien(1929), “Civilisation: Evolution d'un mot et d'un groupe d'idées,”
Première semaine internationale de synthèse, organisée par Henri Berr,
Centre International de Synthèse.

Geuss, Raymond(1966), “Kultur, Bildung, Geist,” *History and Theory*.

Guizot, François P. G.(1985), *Histoire générale de la civilisation en Europe*, (1828)
Paris, Hachette, “Pluriel.”

Hobbes, Thomas(1981), *Leviathan*, C. B. Machperson (ed.), Pelican Classics, ch.13.

Hugo, Victor(1985) *Théâtre II, Oeuvres complètes*, Paris, Robert Lafont.

Jouffroy, Théodore(1833), “De l'état actuel de l'humanité,” *Mélanges philosophiques*,
Genève, Slatkine, “Resources.”

Laurent, Franck(1999), “Penser l'Europe avec l'histoire, Sur quelques aspects et usages de la notion de civilisation européenne sous la Restauration et la Monarchie de Juillet,” *Romantisme*, n° 102, 2° trimestre.

Locke, John(1967),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by P. Laslett, Two Treatises of Government, Cambridge.

Revue de Synthèse(2008), tome 129, 6e série, No.1.

Rousseau, J. -J.(1964), *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inégalité parmi les hommes*, Oeuvres complètes III, nrf.

Abstract

The Transition of the Concept of Civilization in the Eighteenth-and Early-Nineteenth-Century France

Suyoung Hwang(Hallym Academy of Sciences, Hallym University)

■ Key Word : Civilization, Nature, Enlightenment, Progress, Culture, Eurocentrism

The concept of civilization reflecting social relations and changes of time, continue to produce its opposite concepts, to surmount this opposition and finally to widen within universal reach. In the mid-eighteenth century, one word used by the bourgeoisie to designate good manners among courtly people succeed in obtaining the connotation of the word civilization, as it prevailed over other words belonging to the same family. As modern political philosophers, such as Hobbes, Lockes and Rousseau, suppose the state of nature to be opposed to civil society, so the concept of civilization, which succeed this, is characterized as an opposition to nature, and it obtains the universal extension. In the latter part of the eighteenth century, this concept is enrich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lightenment, such as breaking with the past, the awakening of reason, individual liberty, social equality, social progress and development, etc. However, during the Restoration(1814~1830), ideologists like Cousin, Guizot and Jouffroy rehabilitate the continuity of French history to establish the French national identity, and also

emphasize the unity of Europe in an Eurocentric attitude. This attitude, which motivated Western expansionism, was transmitted to a Japanese thinker, Hukuzawa Yukichi who, in turn, triggered considerable controversy around the subjects of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among East Asians.